

<5.19(목) 석간 인터넷 5.19(목) 10:00 이후>



## 보 도 자 료

▶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민재  
담당 서기관 정해영

(02-2110-7182, 7180), 010-3038-8674

▶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이덕희  
담당 사무관 손성길

(02-2110-7284, 7281)

▶ 2011. 5. 19(목) 배포

▶ 총 20쪽 (붙임 문서 포함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고용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#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2차 프로젝트 발표

◆ 고용부·교과부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 확충

□ 정부는 '11.5.19(목) 대통령 주재로 「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」를 열고,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2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.

\* '10.10.14, 71,000개 이상 청년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어 발표한 바 있는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1차 프로젝트의 후속대책

□ 이번 대책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, 교육·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① 고용부·교과부 등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하고,

②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여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도 강화 한다.

③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지방대생에게 반듯한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

④ 청년 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한다.

□ 첫째, 일터가 곧 배움터가 되도록 한다.

- 금년부터 사내대학의 입학 문호를 넓히고(자사직원 → 관련 중소기업 직원), 내년부터 기업교육·훈련기관의 훈련 인프라(강사비·시설비 등) 지원을 확대한다.
- 중소기업 근로자가 **계약학과**(재교육형)를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, 주말·야간 학사학위 과정인 '중소기업형 계약학과'를 금년 9월부터 개설한다.
- 금년중에 4개 **시범단지**에 대학·기업연구소 유치 등으로 QWL 밸리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.
- 미래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**폴리텍대학**의 학과 개편, 바이오·유비쿼터스·그린자동차 분야 등 다기능 과정 확대·신설을 추진하고,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첨단인력 육성을 위해 **전공심화과정**을 개설한다.
- '일'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(지식, 기술, 태도)을 표준화(국가직무능력표준)하고, 이를 충족하는 직업 교육·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**검정(시험)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"과정이수형자격제도"**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.

□ 둘째,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인다.

- '10년 구축한 우수중소기업 DB(7만개)에 기업 비전·재정상황·복지여건 등 실제 취업결정에 긴요한 정보를 추가하고,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청년이 선호하는 매체에서 우수중소기업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.
- 정부부처·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취업포털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, 구직자가 더 쉽게,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을 개선한다.

- 일(Work-net), 훈련(HRD-net), 자격(Q-net) 등 정보망을 상호 연계시켜 최신 상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일, 훈련, 자격별 따로 운영되던 분류를 연계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한다.
- **청년인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확대**로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더 많은 청년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대상(현행: 제조업 생산직)과 지원수준(현행: 100만원)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상한다.
- 초중고 단계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교 **진로진학상담교사**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특성화고와 대학의 취업지원관도 확대 한다.

#### □ 셋째,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힌다.

- '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'지방인재 채용목표제(5급 공채)'의 시한을 '16년까지 연장하고, 광역도시별 4년제 대학 출신의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'지역인재 추천채용제(7급)'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.
- 기업의 지방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'서류전형-필기-면접'으로 이어지는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직무수행능력 중심(인턴→채용)으로 개선토록 유도한다.
- 가을 졸업시기를 고려하여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생 대상 '대기업 채용설명회'를 금년 8~9월에 권역별로 개최한다.

#### □ 넷째, 청년 벤처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한다.

- 전국적인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대학생-스타기업인 연계, 창업멘토링 등 창업행사를 종합한 **지역별 기업가정신 로드쇼**를 금년 중 개최한다.

○ 창업 정보제공·교육, 선배 벤처기업인 특강 등을 통해 「창업선도대학」을 청년·지역 창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, 창업률을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며, 대학정보공시에도 창업교육·지원항목을 확대해 나간다.

□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“이번 대책은 고용부와 교과부가 손을 맞잡고 청년이 일하면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학업-취업 경로를 다양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 “지난해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2차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: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주요 내용

## 청년 내 일 만들기 「2차 프로젝트」

### 【 기본 방 향 】

- 지난해 10월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1차 프로젝트는
  - 일하고 싶은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는데 주력
- 이번 대책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, 교육·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데 중점
  - 고용부·교과부 등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
  -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팬찮은 중소기업 취업 유인도 강화
  -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지방대생에게 반듯한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
  - 전국적인 청년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 확대

## 1. 일터가 곧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### 1-1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학교 확충

#### 현장 목소리

-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 시기를 놓치면 평생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대학 진학을 결심 (특성화고 학생)
-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진학이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으면 진로지도에 도움 (특성화고 교사)

#### □ 기업대학(학위 사내대학/비학위 교육훈련기관) 확산

##### ○ 사내대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('11 하반기)

- 자사 직원뿐 아니라, **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 허용**(평생교육법령 개정)

\* '11년 현재 기업이 운영중인 학위과정 대학은 4개소(삼성전자공과대학, 삼성중공업 공과대학, SPC 식품과학대학, 정석대학)

##### ○ 사내대학, 기업 교육·훈련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**훈련 인프라**(강사비, 시설비 등) **지원 확대**('12)

\*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기업형 운영기관으로 선정

<기업대학 해외사례(세계 4,000개 이상 비학위과정 개설, '10)>

- 인포시스(인도 IT): 글로벌교육센터를 운영, 매년 신입사원 14,000명 고급 IT 과정 운영
- 페트로브라스(브라질 석유사추): 기업대학을 통해 심해석유사추 고급인력 양성
- 햄버거대학(미국): 맥도날드 설립, 메뉴별 조리법부터 매장경영·고객서비스까지 다양한 과정 운영(미 교육청은 동 대학 학점을 정규학점으로 인정)

## □ 기업-대학 연계 「계약학과」 확대

-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약학과(재교육형)를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는 경우 **비용을 지원**(‘12)
-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·야간 학사학위 과정인 ‘중소기업형 계약학과’ 개설(‘11.9)

\* (‘10) 석사과정(11개 대학, 219명) → (‘11) 석사·학사·전문학사과정(21개 대학, 600명)

## □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QWL\* 밸리 확대

\*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, 문화·편의시설을 확충, 복합공간으로 전환

- 4개 시범단지(시화·반월, 남동, 구미, 익산)에 대학·기업연구소 유치 등으로 **QWL 밸리의 성공모델을 창출**(‘11)
  - 학생의 현장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과 재직 근로자의 재교육·학위취득, 마이스터고 학생 등의 선취업-후진학 등을 지원
- 광역경제권별로 1~2곳의 QWL 밸리가 조성되도록 QWL 밸리 확산 로드맵 수립(‘12)

\* 먼저 산학융합지구를 선정하여 대학을 유치한 후 문화·편의시설 조성 병행

## □ 폴리텍대학의 신성장동력분야 인력양성 기능 확충

- 미래인력수요에 대응하여 기존학과 개편, 바이오·유비쿼터스·그린자동차분야 등 **다기능과정 확대·신설**
-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첨단인력 육성을 위해 **전공심화 과정을 개설**(‘12)하고, 근로자의 ‘학사학위’ 취득과 계속교육 기회 확대
  - \* 교과부 주관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지원 사업에도 폴리텍대학 참여 허용
- 재직자 대상 교육기회 확대와 내실화
  - 산업단지 인근 폴리텍대학 캠퍼스에 **야간과정 확대**, 녹색기술 등 **고급 재직자 향상 훈련과정 개설**

## 1-2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

### 현장 목소리

- 학교 졸업 후 별도의 자격증 공부를 또 해야 함(특성화고 학생)
- 학교 주변 기능사 자격시험 학원에 비싼 돈을 내고 다님. 학교 3년 따로, 자격증 공부 따로,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 부담(특성화고 학부모)
- 자격 취득에 평균 9.6개월 소요(국가기술자격소지자 설문조사, '09)

### □ 산업현장의 '일'에 맞추어 직업교육·훈련과정 개편

- '일'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(지식, 기술, 태도)을 표준화\*하고, 이를 확대\*\* (매년 30~50개)

\* 국가직무능력표준(NCS: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

\*\* 현재 웹개발, 정보기기설계, 모바일 콘텐츠 프로그래밍 등 260개 직종을 개발(자격정책심의회의인증 추진) ⇨ 향후 약 500여 직종 추가 개발 예정

- '일'과 '직업 교육·훈련'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교육·훈련과정을 단계적으로 개편('12~)

\* 교육·훈련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교육·훈련과정을 개편할 수 있도록 컨설팅('11 하반기 이후)

### < 해 외 사 례 >

- (영국) 25개 산업별기술협의체(Sector Skills Council)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, 국가자격체계에 반영 ⇒ 교육·훈련교재, 출제기준, 직무기술서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·활용
- (호주) 10개의 산업협회(Industry Sector Council)에서 훈련 패키지 형태로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활용

## □ 개편된 교육·훈련과정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 부여(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)

-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 교육·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**검정(시험) 없이 국가기술자격 부여**
  -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·훈련과정 운영을 유도하고, 국가기술자격 취득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
-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국가기술자격 종목(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등)중 자격검정 수요가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**단계적 도입**
  - '특성화고(3년)-기능사', '전문대(2년)-산업기사' 등 교육·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을 직접 연계
    - \* '11.5월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총 556종목으로, 이 중 특성화고, 전문대 과정과 주로 매칭되는 기능사, 산업기사는 300종목

- 산업계, 교육·훈련·검정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('11.5~)
- 교육·훈련과정 평가체계 개발('11 하반기)
- 교육·훈련과정 개편, 단계적 도입(시범운영, '12~)

- 교육·훈련과정의 **평가·사후점검** 등을 통해 교육·훈련과정의 질 담보

교육·훈련과정 평가기준(예시):

- NCS를 활용하여 교과과정이 설계되었는가?
- 교육·훈련방법은 적절한가?
- NCS를 적용한 교육이 가능한 인력·시설·장비를 갖추고 있는가?
- NCS를 활용한 자체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?

### < 검정형 자격과 과정이수형 자격의 비교 >

| 구 분      | 현행(검정형 자격)                   | 과정이수형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평가 기간    |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↔ 과정 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 방법    | 별도의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| ↔ 교육·훈련과정내 평가<br>(pass/fail 시스템 등) |
| 평가방법의 특징 | 획일적·일회적 평가로 대규모 인원에 대한 평가 용이 | ↔ 교육·훈련생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 가능           |

## 2.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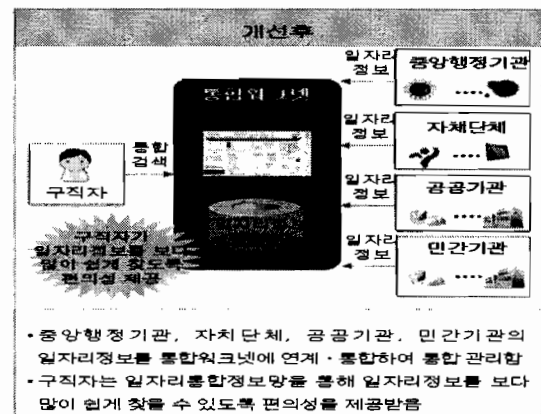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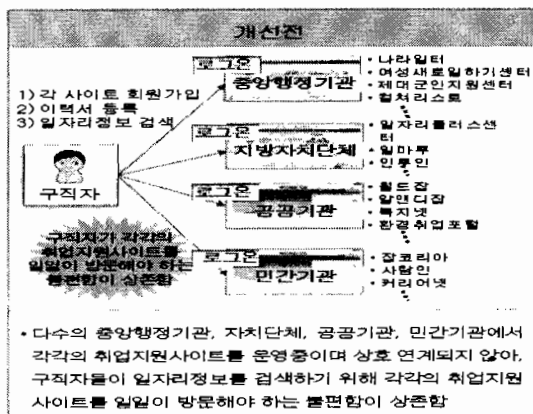
### 2-1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

#### □ 청년 전용 워크넷(Job Young) 업그레이드

- '10년 구축한 우수중소기업 DB(7만개)에 기업 비전·재정상황·복지여건 등 실제 취업결정에 필요한 정보 추가('11)
-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청년이 선호하는 매체에서 우수중소기업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, 구인·구직자간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('11)

#### □ 공공-민간 통합 일자리정보망 구축

- 정부부처·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취업포털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, 구직자가 더 쉽게,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 개선('11하)
- \* (통합전, '11.5) 구인건수 10만건(24만명) → (통합후, '11하) 20만건(50만명) 예상



- 고용정보시스템(고용보험, 직업훈련, 직업정보)을 통합, 사회복지 정보망과 연계하여 수요자의 이력(취업준비, 직장이동, 퇴직, 복지 등)에 맞춘 고용·복지 통합 서비스 인프라 구축('11.5~'12.5)

## □ 「일-훈련-자격」 분류체계 등 개편

### ○ 일-훈련-자격 정보 통합 제공

- 일(Work-net), 훈련(HRD-net), 자격(Q-net) 등 정보망을 상호 연계시켜 최신 상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개선(~'11)

\* 구인·구직 정보 + 훈련정보(일정, 커리큘럼, 강사정보, 지역, 정부 지원금 등) + 자격정보(시험일정, 응시현황, 접수 등)

Work-net 검색창

**구인·구직 정보**

00호텔

-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
- 02-7373-0000
- 상용직 2명
- 경력2년 이상
- 주5일 근무, 4대보험 가입
- 한식조리 산업기사 자격 요

**관련 훈련**

한식조리사 양성과정

[클릭]

00직업전문학교

-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
- 02-3934-0000
- www.jobschool.or.kr
- 09년 계좌제훈련 A등급
- 정부지원금·자기부담금
- 훈련기간
- 훈련교재·강사진

**관련 자격**

한식조리 산업기사

[클릭]

국가기술자격

- 자격개요
- 진로와 전망
- 종목별 검정현황
- 시험일정 : 00월 00일
- 시험수수료 : 16,000원
- 출제경향
- 출제기준

### ○ 일, 훈련, 자격별 따로 운영되던 분류를 연계하고, 주기적으로 보완

\* 장기적으로 일, 훈련, 자격의 분류기준을 일원화

#### <현행 분류체계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일: 고용직업분류(429개), 취업알선직업분류(779개) 사용 |
| · 훈련: 관련훈련 예시직종 863개 사용              |
| · 자격: 국가기술자격 512개 종목 사용              |



#### <일-훈련-자격 연계표>

| 고용직업분류 | 직업명                 | 취업알선<br>직업분류 | 세부직업명  | 관련자격     | 관련 훈련<br>예시직종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450   | 건설,<br>채굴 기계<br>운전원 | 14511        | 굴삭기운전원 | 굴삭기운전기능사 | 건설기계운전<br>공기압축기운전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4512        | 로더운전원  | 로더운전기능사  | 건설기계운전<br>공기압축기운전 |

## 2-2 중소기업 청년취업 유인 제고

### □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확대

- 청년인턴제는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기여(정규직 전환률 85.5%)
  - 특히, 청년층이 기피하는 **제조업 생산직**의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통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(97.1%)되는 성과
    - \* 전체 인턴 참여자 중 제조업 생산직은 14%
- **취업지원금 확대**로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더 많은 청년취업 유도('12)
  - 지급대상(현행: 제조업 생산직)과 지원수준(현행: 100만원) 단계적 확대 및 인상
    - \* 확대대상: 인력부족 직종(제조업 생산직 등), 인력양성 필요직종(전기, 통신 등)

### □ 취약청년층 취업지원 강화

- **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**가 졸업 후 반듯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('12)
  - \* 저소득 가구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학기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허용
- **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인턴참여** 규모를 확대('10년 10천명 → '11년 12천명), 일하면서 직업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확대

## 2-3 학교의 직업교육·진로지도 강화

### 현장 목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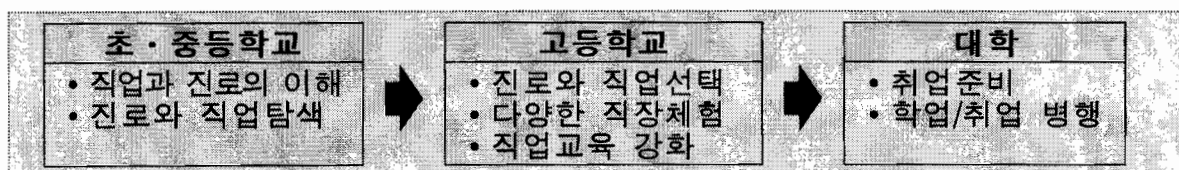
-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는 직업의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(목포대 청년고용센터 개소식)
- 요즘 학생들은 공무원, 선생님 말고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데 무엇부터 가르쳐줘야 할지 막막하다 (중학교 교사)

### □ 초·중고 단계의 체계적인 진로지도

- 방과 후 진로교육과정을 활성화(초·중·고)하고, 「진로와 직업」 교과목 편성 비율을 확대(초·중·고)하도록 권장
- 중고교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**진로진학상담교사** 단계적 확대 배치('14)
- 학교와 고용센터 네트워크 구축, 워크넷과 커리어넷 온라인 활성화를 통해 직업심리검사 보급·확대
  - 직업심리검사 사용자(교사 등) 전문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 이수자에게 검사해석 자격을 부여하여 상담역량 강화('12년 시범운영, '13년 1,600명)
- 진로결정·직업탐색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자료 개발·보급(한국직업전망, 미래의 직업세계 등 진로·직업 종합정보서 제공)
- 청년의 취업 후견인, 「취업지원관」을 특성화고와 대학에 확대 배치('10년 113개교 154명 → '11년 249개교 319명)

### □ 고교 취업준비생 산학협력 교육·훈련 지원

-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·직업윤리·노동관계 법령 등 교과과정 개발('12)



### 3.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혀겠습니다.

#### 현장 목소리

- 뛰어난 역량을 갖춘 지방대생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(지방대학 취업지원관)
- 대기업,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 채용설명회는 주로 서울지역에서만 개최되어 아쉬움 (지방대 졸업생)
- 인턴기회 조차도 수도권 출신들에 쏠리는 것 같음 (지방대생)

■ '10년 기준 대학졸업생 470천명\* 중 지방대 출신은 284천명(60.4%)

- 대졸자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(53.3%)과 지방대학(53.5%)이 엇비슷

\* 출처: 2010년 취업통계연보(건강보험 DB연계 취업상황 기준)

- 다만, 대기업 취업자 중 지방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

| 구 분  | 졸업생 비중 | 대기업   | 중소기업 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도권  | 40%    | 55.8% | 37.0% |
| 비수도권 | 60%    | 44.2% | 63.0% |

#### 3-1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 강화

□ (공직) '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'지방인재 채용목표제(5급 공채)\*'의 시행을 '16년까지 연장

\*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%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('07~'10년까지 10명 추가 선발)

- 광역시도별 4년제 대학 출신의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'지역인재 추천채용제(7급)'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('11년 70명)

□ (공공기관)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 기대

- 부산항만공사: 본사가 부산에 소재, 지역인재 우대 없이 채용인원 대다수가 지방대 출신('08~'10년 지방대 졸업자 평균 채용비율 91.7%)
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: '05년 본사의 제주도 이전 후 지역인재 우대 없이 제주지역 대학출신자 채용 증가('03~'05년간 총 채용인원 53명 중 10명 → '06~'10년 73명중 34명)

-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시, 기관별 지사·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우선 선발('11년 1만명 중 5천명 이상)

-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시\*하고, 경영 평가\*\*에 반영('12.3~6)

\* 「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」 개정('11.2)

\*\* 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(조직/인적자원관리 지표, 4점)에 지방인재 채용실적과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노력 등 반영

- '채용목표제'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

- 지역인재 채용이 일정수준(예: 30%)에 미달하는 기관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지방인재 채용확대계획 수립·추진을 권고

- 채용목표제(한국은행·지적공사 등): 지방인재의 최종합격 또는 전형 단계별 통과 목표율 설정·운영
- 권역할당제(근로복지공단·산업인력공단 등): 지사 근무 등을 조건으로 당해 지역 출신자를 제한경쟁으로 채용

### 3-2 기업의 지방인재 채용기회 확대

□ 대기업의 '서류전형-필기-면접'으로 이어지는 **학력 중심의 채용문화**를 **직무수행능력 중심(인턴→채용)**으로 개선 유도

○ '민관 일자리창출 협의회'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채용기준 변경 권고

- SK그룹: 인턴채용(3개월) 후,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정식직원 채용 결과 지방대생이 전년대비 25% 증가
- IBK투자증권: '11년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심사와 1차 면접 실시, 신입사원 중 지방대 출신이 2배 증가

□ 가을 졸업시기를 고려하여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**대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생 대상 '대기업 채용설명회'**를 권역별로 개최('11.8~9월)

\* 선배의 취업성공사례를 소개하여 지방대생의 심리적 부담 해소

- 경총과 대기업(삼성·SK·POSCO 등) 공동으로 개최한 안동지역 대학생 취업 지원 설명회('10.10월)의 호의적 반응과 성과 고려 → 전국 확대

□ **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우수 인재 양성과 이들의 도전기회 확대**를 위해 **기업·학교·고용센터의 상생협력**을 강화

○ **(인재육성)** 기업·사업주 단체가 주도하고, 대학이 협력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청년인재 양성

\* '11년 53개 「청년취업 아카데미」 개설(44개 아카데미는 지방대학과 MOU 체결)

○ **(인턴참여)** 청년취업인턴 프로그램에 지방대생의 참여기회 확대

\* 지방 기업의 청년인턴 채용인원을 확대하고 지방대생의 인턴참여 요건을 완화

○ **(취업지원)** 지방대생의 직업진로, 취업·채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「대학청년고용센터」 운영 확대

\* '11년 총 44개교 중 70%를 지방대로 선정, 대학과 고용센터와의 가교 역할

## 4. 청년 벤처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### 현황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재능있는 한국청년들, 벤처성공의 걸림돌은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(The Economist)
-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벤처창업에 대한 관심 회복이 중요(벤처기업협회장)
- 앱 수요의 증가로 앱개발과 다른 분야 전문가와 협업이 긴요(앱 제작자)

### 4-1 전국적인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

#### □ 청년의 글로벌 창업 열기 확산

- 대학생-스타기업인 연계, 창업멘토링 등 창업행사를 종합한 지역별 기업가정신 로드쇼 개최
  - \* 5.9일 전주대를 시작으로 5~6월 10개 대학, 하반기 5개 대학 개최
- 전국적인 창업경진대회(실전창업리그)를 개최하고, 준비·평가 과정을 공중파 TV로 방송(6월~10월)
  - \* 입상자에게는 상금(최대 5천만원), 전시회 참여, 자금 등을 연계 지원
- 방학기간중 해외창업 맞춤형 교육과정 본격 운영('11.12월)

#### □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 촉진

- 창업 정보제공·교육, 선배 벤처기업인 특강 등을 통해 「창업 선도대학」을 청년·지역 창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
  - \* 선도대학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사업을 집중 전개('11: 15개, 연차적 확대)
- 창업률을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고, 대학정보 공시에도 창업교육·지원 항목 확대

- 대학 1학년 때부터 창업실패 부담감 없이 일자리 창조에 도전할 수 있도록 「창조캠퍼스 지원사업」 확대('11년 10개 대학 → '12년 20개 대학)
- \* '11년 경북대 등 10개 대학(지방대 8개), 100개 창작 프로젝트팀 멘토링 등 지원중

#### 4-2 스마트 창조기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

##### □ 스마트 창조기업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·강화

- 앱창작터(25개)의 교육분야와 대상을 확대
  - \* ('10) 모바일 중심, 1,660명 교육 → ('11) 웹 추가, 4,200명 교육
- 앱창작터 우수 이수자는 고급 민간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강화
  - \* 전문과정 ('10년 → '11년): (KT) 4회 155명 → 25회 500명, (SKT) 2회 50명 → 3회 75명, (삼성전자) 신규 2회 50명

##### □ 중소·벤처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모집공고, 기업홍보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채용 사업 확대

- \* '10년 321명 채용 목표 → '11년 1,000명
-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공동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적응하고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도
  - \* '09년 벤처기업 신입사원 공동교육 시범실시 결과, 신규직원 274명 중 23명이 퇴사하여 퇴사율은 8% 수준(일반벤처 조기퇴사비율 31%)

## 추진 일정

|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일정 |     |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1  | '12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일터가 곧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-1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학교 확충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기업대학과 기업 교육·훈련기관 확산           | →    |     | 교육과학기술부<br>고용노동부          |
| ○ 기업-대학 연계 계약학과 확대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<br>중소기업청 |
| ○ QWL 벨리 산학융합지구 설립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지식경제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○ 한국폴리텍대학 신성장 동력분야<br>인력양성 기능확충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1-2 과정이수형 국가자격제도 도입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교육·훈련과정 개편      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○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   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등<br>18개 부처         |
| ○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교육·훈련과정 평가를 통한 내실화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2.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겠습니다.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-1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청년전용 워크넷 업그레이드  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공공·민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<br>구축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일-훈련-자격 연계 인프라 강화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2-2 중소기업 청년취업 유인 제고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<br>확대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내일배움카드제 확대       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고졸이하 미취업자 인턴참여 확대             | →    |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
|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일정   |        |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1    | '12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-3 학교의 직업교육·진로지도 강화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중등학교 직업진로지도교사 확충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    |
| ○ 직업심리검사 보급·확대 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○ 고교 학년별 진로·취업지원 모델 정립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○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 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고교 취업준비생 산학협력 교육·훈련 지원         |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|
| 3.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겠습니다.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-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역인재 우선 선발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채용목표제 등 지역인재 채용확대              |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     |
| 3-2 기업의 지방인재 채용기회 확대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지방대생 대상 대기업 채용설명회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청년인턴 지방대생 참여 확대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대학내 청년고용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4. 청년 벤처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.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1 전국적인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중소기업청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 촉진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중소기업청<br>고용노동부<br>교육과학기술부 |
| 4-2 스마트 창조기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공동 채용 지원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스마트 창조기업 양성 교육과정 확대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중소기업청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중소벤처 공동채용 확대 등                 | —————→ |        | 중소기업청                     |